

내 작품의 주제가 늘 '어머니'인 까닭

“모성의 힘을 발굴해 내는 것이 여성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아, 우리도 이런 힘이 있어' 라는 의식을 전이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글 · 안철홍 기자 | 사진 · 박진희 기자

화가, 설치미술가, 여성운동가,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발행인. 윤석남씨(59)가 갖고 있는 직함들이다. 거론한 순서로 맨 앞의 것이 20여 년 된 것이라면 맨 뒤의 직함은 이제 겨우 반년이 채 안된 것이다. 그의 나이가 내년이면 이순이니만큼, 그의 생물학적 나이와 그에게 부여된 직함들의 사회적 나이는 닮음꼴이 아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의 불일치성, 이것은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다.

마흔이 될 때까지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자가 뒤늦은 나이에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면의 중견 작가로 성공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를 결혼한 여성들이 발붙이기 힘든 남성우위 사회에서 온갖 역경을 뚫고 성공을 '쟁취'한 슈퍼우먼의 한 사람쯤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진보주의자들도 그 나이가 되면 보수주의자로 변하기 마련인 현실이 낄어서 그는 여성운동가들과 만났고, 스스로 여성운동가가 됐다. 그는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화가들 사이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사회적 나이가 더 중요함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전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청춘이다.

이순의 나이에 청춘을 맞은 여자

윤석남씨는 기자를 두 번 놀라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참고까지 포함해서 1백여 평은 족히 되어 보임직한 그의 작업실 때문이었다. 그의 작업실은 무너진 삼풍백화점 인근의 한 오래된 아파트 지하를 빌려 개조한 것인데, 그 곳에는 그 동안 그가 작품전시회를 할 때 전시했던 설치작품들, 예컨대 쇠막대가 꽃혀 있는 분홍색 소파나 시커멓게 칠해 놓은 거울,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넣은 어른 팔뚝만한 나무 막대기들이 구석구석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드릴이며 쇠망치 같은 공구들, 그리고 쇠꼬챙이며 나무토막 같은 작업 도구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약 40여 분 늦게 나타났는데, 그 사이 실새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그에 이어 엔서링머신에 저장되어

화가 윤석남

39년 만주 출생
60년 성균관대 원문과 중퇴
83~84년 미국 프렛대학 그래픽 센터
1년 수료
82년 첫 개인전 「윤석남전」(문예진흥원)
93년 「어머니의 눈」(금호미술관)
96년 「윤석남전」(조현갤러리)
96년 「윤석남전」(도쿄 가이쿠라 갤러리)
97년 「빛의 파종전」(조선일보 갤러리)
민족미술협의회 회원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발행인

있다 울려 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만이 이 곳이 여류 설치미술작가의 작업실임을 알려 주고 있을 뿐, 그의 작업실은 흡사 어느 역센 남성 작가의 작업실 같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놀람의 정체는 그의 작업실의 방대함 이라기보다는 작업실에서 풍겨 나오는 남성적인 힘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막상 그가 나타났을 때 두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는 한 여성운동 단체의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나이 지긋한 중견 작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아동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런 점들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었다. 여성운동가 특유의 강박함이

을 동시에 내포한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지만, 진짜 자기는 상실된 지 오래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시대 중산층의 이율 배반적인 삶을 상징하는 기호이기도 하다. 그의 「거울보기」는 그런 중산층 여성들의 이율배반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여성 문제를 그린다고 하면서 아파트의 중산층을 소재로 삼은 것은 어쩐지 소부르조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는 없다.

“중산층 여성문제만 있는 것으로 호도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작가로서 자신이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중산층 여성보다는 기층 여성들에게서 여성문제의 소재를 찾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기가 두려워요.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가 중산층 여성들을 작품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다. 그를 줄곧 지배해 온 어머니에 대한 주제가 자기 자신에게로 확장되면서 중산층 여성문제가 작품 속에 투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 그의 모든 작품의 소재와 주제는 어머니와 모성에 관한 것이었다.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는 화가로 거듭 성장했고, 뒤늦은 나이에 여성운동가들과 만났고, 스스로 여성운동가가 되었으니까.

그와의 인터뷰를 계획하면서 여성운동 단체에 있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 봤다. 그 중 한 명은 그를 '여성문화운동의 정신적인 어머니'라고 불렀고, 또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모범생 스타일이며, 사람들 사귀는 것을 어려워해서 인터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평이 있더라도 그에게 전했더니 그는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지요. 그냥 여성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겠지요”라며 매우 속스러워했다.

—보통 우리나라의 어머니라면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한국적인 여성의 미를 표현하다가 급진적인 여성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의식의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제가 작품활동을 처음 하면서부터 어머니 얘기를 해 온 것은 맞지만 순종적인 여성을 그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땐

물론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없던 때죠.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나하면요, 내가 어머니 얘기를 그리는 것이 마치 모든 여성들에게 제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어머니의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어려운 시대를 겪어오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근본적인 힘이 어머니의 모성의 힘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땐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없었음에도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어머니 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나갔지요. 손이나 눈을 강조하는 식으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도 모성의 힘을 발굴해 내는 것이 여성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아, 우리도 이런 힘이 있어'라는 의식을 전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여성의 끈질긴 힘을 배웠지요”

그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조선 양반집안의 여인이었다.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규방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리던 분이였다. 그러나 어린 육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뒀을 때 어머니의 운명 또한 바뀌었다. 아버지의 병수발로 얼마 되지 않던 재산마저 다 흠어져 버렸다. 어머니는 어린 육남매를 이끌고 금호동 달동네로 이사했고, 생전 바깥일을 안 해보시던 분이 흙벽돌을 직접 짊어 방을 만들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온갖 막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막일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한번도 어떻게 사나, 큰일났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힘, 제도에 흡수되지 않고 타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을 배웠어요. 저는 가난하게

“저는 어머니에게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힘, 제도에 흡수되지 않고 타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을 배웠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난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지요.”



자랐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난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지요.”

어머니를 그렇게 강한 여성으로 키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부재였다. 아버지, 그의 이름 '석남'에서도 느껴지듯이, 아들을 얻기 위해 내리 팔을 낭도 록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으면서도 정작 집안 꾸리는 것에는 도무지 능력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영화·연극운동의 초창기 멤버였으며 해방 이후 초대 예술원 회원을 지낸 고 윤백남씨다. 그는 어렸을 때의 아버지 모습을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만큼 그에게 아버지는 먼 존재였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54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청교도적인 성격이시거든요. 누구한테 쌀 한 톨 빌리는 성격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했고, 저는 고등학교도 안 다니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등록금 내기도 아깝고 해서…….”

그는 대학을 안 나왔다.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마쳤지만 고등학교 때의 그의 모습도 모범생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하기

싫은 과목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다. 국어는 만점을 받았지만 수학은 뺑뺑을 받는 식으로 내키는 대로 공부하곤 했다. 그래도 대학을 갈 성적은 충분했으나, 그는 대학을 포기했다. 돈도 없었지만, 학교라는 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

“저는 문학소녀였어요. 당시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게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들도 많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구요. 그래서 여학교 졸업하고 4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어요. 4년째 직장생활 하다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성균관대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학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지금 같으면 계속 공부했을 텐데, 어린 마음에……등록금도 없고 해서 아이 모르겠다, 혼자 살지 뭐, 하



그의 최신작 「999」에 사용되었던 '어머니'를 그린 나무토막들.

나 중견 여류작가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간간함 따위의 선입견이 일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건 뭐가요?”라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감히 작품을 ‘저거’라고 불경스럽게 손짓까지 해가며 첫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저거’라는 손짓에 전혀 개의치 않고 대답을 시작했다.

“저건 「거울보기」라는 작품인데요. 아파트라는 폐쇄된, 레디메이드한 공간에서 기성품으로 사는 여자들의 삶을 그려 봤어요. 저기 보이는 거울이 까망쪼? 자기를 보는데도 잘 드러나지 않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죠.”

우리 시대의 아파트는 중산층적인 삶의 상징이다. 그러나 사각의 시멘트 공간 안에서의 삶은 편안함과 그에 대한 반감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편집진들과 함께한 윤석남씨.

고 그만두어 버렸지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대에 진학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당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미술을 공부하는데 학교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미술공부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대에 가지 않은 것은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요.”

죄의식 고민하며 3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그 이후 20여 년을 그는 평범한 주부로 보냈다. 가끔씩 예술적인 끼를 해소할 길이 없어 방황하던 그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서른 여섯살 때 우연히 시인 박두진 선생을 만나 그로부터 4년 정도 서예를 배우기도 했다. 박두진 선생이 취미 삼아 알음알음으로 7, 8명의 주부들을 모아 놓고 서예를 가르쳤는데, 박 선생 사모님과 아는 사이였던 그에게도 배울 기회가 생겼던 것. 그는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인 끼를 온통 털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이 한두 장씩 해오던 속재를 그는 자청해서 백여 장씩 해오곤 했다. 그런 그를 두고 박두진 선생은 “너는 얼음 속에 불을 담은 사람”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잠재되어 있는 그의 예술혼이 노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

그는 마침내 마흔살을 채우고 나서야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6개월 동안 석고대생 하시는 분에게서 데생을 배우고, 또 다른 작가한테서 1년 정도 유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혼자 습작기간을 거쳤지요. 그 때도 테크닉은 배우되 정신은 혼자서 기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정신적인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흔두살 때 첫 개인전을 열 기회가 왔어요.”

첫 개인전의 기회는 우연히 다가왔다. 당시 그는 이미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던 친구와 같은 화실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2인전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했고, 그 친구의 노력으로 문예진흥원에 방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안 사람들이 그에게 넌지시 충고를 하더라고. 너는 무명이고 저 친구는 유명인데, 너와 2인전을 하면 저 친구한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해 친구를 설득해서 따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로서는 무명의 작가가 문예진흥원 방을 딱 하나 빌려 혼자 개인전을 연 꼴이 되고 만 셈이었다. 그렇게 그는 데뷔했다.

“그런데 전시회의 평이 의외로 좋았어요. 장육조 선생도 오셔서 칭찬하시고, 한 평론가는 근래 보기 드문 전시회라는



평도 써 주시고, 제가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볼 수 없었던 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 좋은 선생들을 많이 만나 그룹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지내 온 거죠.”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90년대 초 우리 미술계에서 민중미술운동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던 때였다. 당시 민중미술협회의 회원이었던 그는 격변하는 사회·문화 분위기 속에서 뭘 그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면서 3년을 그냥 보냈다.

“제 주제가 항상 어머니였지만, 그렇다고 제 작품이 민중적인 삶을 대변한다는 어머머만한 생각은 못했어요. 전 항상 소박하게 화가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나는 당시 민미술 회원이었고, 당시 민미술에는 목적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의무 같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림을 못 그리겠더군요. 맘은 있는데 행동으로 참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회색분자라는 생각, 도덕

적인 죄의식 등으로 갈등했지요. 동료들은 위대해 보이면서도 나는 하기 싫은 일을 배반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갈등이 해소되기까지 3년이 걸렸지요.”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고민만 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3년 후 재등장하면서 그는 유화를 버리고 설치미술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설치미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치미술이란 형식 자체가 낯서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낯선 것이면

할 수 없지만, 주제만 공감할 수 있다면 설치작품이 대중들과 더 소통하기 쉽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거울보기」란 작품을 전시했을 때 한 아이가 의자에 쇠막대를 꽂은 것을 보고는 ‘아, 가시방석이다’ 그래요. 그럼 1차적인 소통은 된 거죠. 단지 그것이 예술로 감동을 줬느냐는 미지수지만요. 또한 저는 예술이란 것이 완벽한 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예술작품은 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만 보여도 애쓰지 않



“6개월 동안 석고대생 하시는 분한테 가서 데생을 배우고, 또 다른 작가한테서 1년 정도 유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혼자 습작기간을 거쳤지요. 그 때도 테크닉은 배우되 정신은 혼자서 기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정신적인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흔두살 때 첫 개인전을 열 기회가 왔어요.”

전시했던 ‘어머니’ 조각들은 “초점 잃은 먼 시선과 기다림에 지쳐 돌이 된 듯한 부동의 직립자세, 그리고 나무조각에서만 가능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수룩한 형태”(미술 평론가 박래경의 평)를 하고서, 우리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 어머니들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의 작업실 구석구석을 가득 메운 채 서 있다. □

는 사람에게만 쓰레기에 불과할 때가 많죠. 저는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앤디 워홀이 마돈나를 그렸다고 해서 그게 대중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미술을 비롯한 모든 예술장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모든 예술장르는 감상하기 위한 일정량의 훈련이 필요하죠.”

여성으로서의 최초로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그는 작년말 「빛의 파종」이란 주제로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 초대전을 가졌다. 이 전시회를 통해 그는 다시, 그리고 새롭게 ‘어머니’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이른 팔쪽만한 나무토막 9백99개에 서양붓이 아닌 우리 전통의 모필을 사용해서 한국의 어머니상을 하나하나 그려 넣은 그의 최신작 「999」는 한국 여성들의 내면적인 삶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 때